

## “금 나와라 뚝딱” 상상이 눈앞의 현실로



‘우리가 아는 미래가 사라진다’  
김형근 지음



“꿈을 꾸는 피실험자에게 수면 뇌전도 측정과 단층촬영 기술을 적용하면, 잠자는 동안에 벌어지는 단순한 행동뿐만 아니라 시작적인 내용과 패턴까지 측정할 수 있다.”  
머잖은 장래에 인간의 꿈이 읽히는 시대가 도래한다. 꿈의 시작적인 내용과 패턴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기술이 개발 중이다.  
그뿐만이, 사람의 마음까지 찍어내는 카메라의 등장도 멀지 않았다. 이성을 만나면서 판 사람을 마음에 두었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이다. 물론 거짓말 탐지기도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생각과 마음을 사진처럼 찍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의 물질’의 저자 엘빈 토플러는 “지구촌은 이제 ‘감자’와 ‘약자’가 아니라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한다는 의미다. 도래할 변화에 얼마나 빨리 대처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생존여부가 갈리게 된다.  
과학칼럼리스트로 유명한 김형근 씨가 펴낸 ‘우리가 아는 미래가 사라진다’는 세상을 바꾸는 50가지 트렌드를 담고 있다.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눈부신 과학기술의 단면을 소개했다. 2040년 경에는 무엇이든지 복제할 수 있는 만능복제기가 등장한다. 가장 비싼 요리 캐비어에서부터 다이아몬드에 이르기까지 복제가 가능하다.  
“금 나와라 뚝딱”의 도깨비 방망이가 더 이상 상상 속 얘기가 아니라는 거다. 100만 년 전에 사라진 공룡도 복제할 상황인데, 귀금속의 복제는 식은 죽 먹기다.  
2부는 사회와 문화의 변화를 다뤘다. 신체부위 제작자라는 새로운 직업이 등장한다. 운동선수든 더 이상 부상으로 인한 은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새로운 계급인 창조층이 사회를 지배하고 프리랜서 기업시대가 열린다.  
환경과 에너지 부분은 3부에서 조망했다. 미래엔 해파리와 해초로 전기를 만들고, 모자라는

전력은 우주의 세균으로 보충한다. 새 깃털을 이용한 레이저의 등장과 바다에서 재배한 버섯 식탁에 오른다.  
마지막 4부에서는 건강과 웰빙을 들여다보았다. 인공피부의 개발로 화상이나 흉터로 인한 마음고생은 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심리 상담은 사람이 아닌 로봇이 담당할 정도로 보편화된다.  
이처럼 저자는 50가지 과학 트렌드가 머잖은 장래에 펼쳐질 거라고 예측한다. 그러면서 한 가지 소망을 피력한다.  
“제발 좁은 나라 안에서 동서라는 지역주의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길 바란다. 그리고 냉전의 산물인 좌파 우파의 이데올로기를 청산하길 바란다... 가장 커다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자의 말마따나 앞으로 닥칠 변화의 소용돌이는 만만치 않다. 상상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고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는 것 또한 진리다. 책의 방점도 여기에 놓여 있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펼쳐질 새로운 변화가 그다지 달갑지만은 않다. 황금만능주의보다 무서운 기술만능주의가 세상을 지배할 것 같다. 무엇보다 나와 똑 같은 인간이 복제된다는 상상은 그 자체만으로도 무섭다.  
〈워즈덤하우스·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변화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 ‘구본형의 마지막 편지’



구본형 지음

“삶은 지금이며, 생명의 출렁이며, 거친 호흡이며, 구름처럼 불완전한 끊임없는 변이입니다.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이 긴 편지를 쓰며 당신을 생각합니다.”  
1998년 ‘익숙한 것과의 결별’로 자기 혁신의 방향을 제시했던 구본형의 유고집이 나왔다. ‘구본형의 마지막 편지’는 지난 4월 지방으로 세상을 떠난 고인이 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열네 통의 편지를 담았다.  
외형상 수신인은 특정한 개인이지만, 사실은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가 수신인이다. 책은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쯤 고민했을 이야기를 다룬다. 열네통의 편지는 때로는 따끔한 일침을, 가슴 뜨거운 격려를, 감직한 충고를 전한다.

“결혼을 앞둔 J를 위하여”는 젊은이들이, 아니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이들이 새겨들어야 할 책이다.  
“나는 두 가지를 당부하고 싶네. 하나는 싸움을 잘하라는 것이네... 하나가 늘 피하고 양보하고 물러두면, 다른 사람에게는 편할지 몰라도 참는 사람에게는 질곡과 억압이지 않겠는가?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네. 그러나 하나의 사건을 놓고도 견해가 다르고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 차이를 받아들이면서 서로 잘 어울리기 위해서는 창조적 불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나는 이 불화현상을 튜닝이라고 부른대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의 악기가 되는 것이네.”  
〈휴머니스트·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책으로 떠나는 한 여름밤 산책

### ‘야밤 산책’



리듬 지음

잠도 오지 않는 한여름 밤 혼자 읽으면 좋은 53권의 책 이야기가 나왔다. 네이버에서 ‘리듬의 달콤 쌉싸름한 일상’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리듬이 펴낸 ‘야밤 산책’은 재미난 독서 기록이다.  
필자는 누군가 버린 책 더미 속에서 ‘리듬’이라는 책을 발견하고 그 책에 감명 받아 이름으로 쓰게 됐다고 한다. 읽은 책을 바탕으로 블로그에 올린 글이 500만 명 이상이 다녀갈 만큼 인기다.  
‘야밤산책’은 총 4개의 산책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1코스 키워드는 ‘삶’이다. 무료하고 별 다를 것 없는 일상에 불쑥 끼어들어 친진난민하게 안부를 묻는 책들을 담았다. 김종혁 ‘뭐라도 되겠다’, 베르나르베르베르

‘웃음’, 니코스카잔차키스 ‘그리스인 조르바’ 등이 소개돼 있다.  
2코스 주제 ‘사랑’은 시련의 상처나 권태로운 관계를 다룬다. 프랑수아즈 사강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오르한 파묵 ‘순수 박물관’, 박범신 ‘은교’ 등이 이에 해당한다.  
3코스 코드는 ‘꿈’이다. 진짜 행복은 무엇이며 사라진 열정에 대해 묻는다. 무라카미 하루키 ‘잡문집’, 강신주 ‘상처받지 않을 권리’, 시오노 나나미 ‘십자군 이야기’ 등을 담았다.  
마지막 4코스 주제 ‘일’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업’에 관한 고민을 다룬다. 하일권 ‘목욕의 신’, 알베르 토 망구엘 ‘보르헤스에게 가는 길’, 미야베 미유키 ‘화차’ 등을 만날 수 있다.  
〈라이온북스·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그녀들이 나누는 위로의 대화

### ‘수짱 시리즈’ 마사다 미리 지음



일본 만화가 마사다 미리의 작품은 읽는 내내 미소 짓게 만든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주말엔 금요일’ 등 그녀 작품 속 주인공이 친구들과 나누는 잔잔한 대화는 여자들에게 많은 위로가 된다.

그녀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수짱 시리즈’가 나왔다. 일 잘하는 멋진 여자가 되고 싶은 서른 네살의 주인공 수짱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아무래도

에 답했다.  
카페 매니저로 일하다 카페 점장이 되고, 서점에서 만난 쓰시자와 만남을 이어가가는 수짱의 이야기가 잔잔하게 펼쳐진다. 먼저 출간된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를 합쳐 시리즈 4권이 완간됐다. 〈이봄·각 권 8000원〉  
/김민경기자 mekim@kwangju.co.kr

## 자유로운 여행을 꿈꾼다면...

### ‘여행 정신’

장 피에르 나디르 외 지음



풍족함, 공동 지갑, 시차 적응, 머리만 대면 잡드는 능력, 현지에서 작업 결기, 여행자 설사, 길을 잃을 자유, 향수병... 여행과 관련한 항목들을 사전형식으로 서술한 색다른 여행서 ‘여행 정신-현명한 여행자를 위한 뼈뺀 안내서’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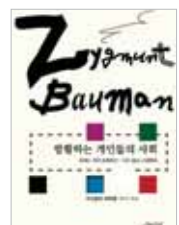
프랑스의 두 여행 기자 장 피에르 나디르와 도미니크 외드가 만든 이 비표준 여행 대사전은 A부터 Z까지 250개의 항목에 역사와 문화를 넘나드는

다양한 지식과 생생한 정보, 흥미진진한 경험담을 담고 있다.  
여름 휴가철 쏟아지는 여행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진 한 장 없이도 여행의 매마르지는 가능성과 매력을 상상하게 한다. 무리지어 몰려다니는 단체 관광 대신 여행자를 매혹하는 드넓은 세계로의 자유로운 여행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여행의 본질과 다양한 경험을 다룬 책이다. 〈책세상·1만5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무엇이 ‘개인’을 떠들게 하는가

### ‘방황하는 개인들의 사회’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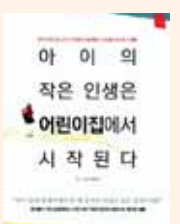


“우리는 모두 개인이다. 나는 홀로 불확실한 미래, 불시에 다가올 재앙 앞에서 있다. 사회는 더 이상 개인의 불운을 집단적으로 해결해주지 않는다. 해결해주겠다는 약속조차 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떠들게 하는가?”  
영국 리즈대학 지그문트 바우만 명예교수가 쓴 ‘방황하는 개인들의 사회’는 개인들의 사회를 사는 우리의 사고방식, 존재방식, 행동방식에 관한 저자의 성찰이 담긴 책이다.  
저자는 노동, 세계화, 사유화, 진보, 교육, 정체성, 윤리, 민주주의, 도덕성 등이 지닌 가치 형태가 파괴되는 오늘날의 상황을 ‘우리의 존재 방식’ ‘우리의 사고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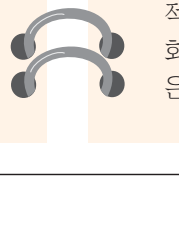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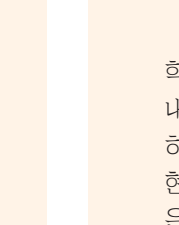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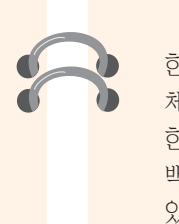
식’ ‘우리의 행동 방식’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설명한다.  
그는 개인들이 ‘우리’라는 공동체에서 벗어나 홀로 방황하며 떠도는 유목민적 문명에 처하면서 공적 인간, 공적 사회, 공적 책임이 실종됐다고 비판한다.  
바우만은 이 때문에 인간에게 이상이 사라지고 무기력을 잃는 시대가 왔다고 주장하면서 흩어진 개인들을 다시 묶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과제가 됐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한 적이 없으며, 여기 존재함이 어떤 것인지 어떤 지속적인 결과를 초래할지 두고 볼 일이다”라는 바우만의 경고가 허두무 들리지 않는다.  
〈봄이필·2만원〉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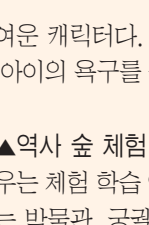
▲슬프고 유쾌한 텔레토비 소녀=한국일보 문학상, 김유정문학상, 백신애문학상을 수상하며 자신만의 뚜렷한 소설세계를 입증해 온 강영숙 작가의 세번째 장편소설. 도시의 양 극단에서 있던 두 사람이 만나 벌이는 파괴적인 사랑, 어그러진 욕망으로 서로의 삶을 풍화시키고 종래에는 모두 소진되게끔 하는 몇달간의 과정을 담았다. 〈문학과 지성사·1만2000원〉  
▲싸우지 않는 부부가 위험하다=현직 기자인 남편과 전직 기자였던 아내. 실제 부부인 저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했던 부부싸움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때로는 돌직구로, 때로는 예뻐서서 부부 사이에 진짜 생길 법한 일과 그 해결 과정을 낱낱이 보여준다. 10년의 결혼생활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어떻게 바꾸고 성장시켰는지 지켜볼 수 있는 생생하고 유쾌한 싸움의 기록이다. 〈예담·1만3800원〉  
▲엄마, 일단 가고봅시다!=키만 큰 30세 아들과 갸마른 60세 엄마. 둘이 합쳐 몸무게 100kg, 나이는 90살. 바람 앞의 촛불과도 같은 두 모자가 매서운 겨울바람을 헤치며 집을 나섰다. 인연 부두에서 시작해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막을 내리는 300일 간의 기나긴 여정이었다. 장장 50개국 100여개가 넘는 도시에 발자취를 남긴 이들의 유쾌하고 가슴 정한 여행기가 책으로 출간됐다. 〈북로그컴퍼니·1만5000원〉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과거청산 운동에 직접 참여한 비판



적 사회학자 김동춘이 연구와 실연을 합치시킨 양심과 책임의 기록. 민간에서 시작된 학살 진상규명 요구가 정치권을 거치며 어떻게 굴절되었는지, 정부 기관인 진실화해위의 조직과 운영의 한계가 제대로 된 과거청산을 어떻게 가로막았는지, 과거청산의 목적이 피해자 구제인지 또는 정의의 수습인지 등 활동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쟁점들을 정리하며 과거청산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고 있다. 〈사계절·2만5000원〉  
▲아이의 작은 인생은 어린이집에서 시작된다=“우리 아이는 하루 종일 어린이 집에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까?”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엄마들의 소소한 궁금증은 물론, 엄마들의 잘 모르는 아이들의 어린이집 생활, 아이의 교육과 보육을 위해 엄마와 어린이집 교사가 어떤 마인드를 공감해야 하는지 다루고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법이나 식사는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엿볼 수 있다. 〈for book·1만5000원〉  
▲내일을 위한 경제학=어렵고 딱딱하게만 여겨온 경제학의 주요 원리들을 생활 속 이야기로 풀어냈다.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까 하는 사소한 고민에서, 인생의 기로에 선 심각한 고민까지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이고 무엇을 선택해야 내가 더 행복할 지 고민하지만 선택은 늘 어렵다. 경제학은 이런 선택의 순간에 어찌보다 오늘날, 오늘날 내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조언한다. 〈다시봄·1만6000원〉



▲한양도성=조선시대 한양을 둘러싸고 있던 전체 18km에 이르는 성곽, 한양도성. 태조 이성계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쌓았던 성이다. 책은 200년 전, 과거 화적을 위해 한양도성을 순성하는 윤선비라는 캐릭터를 따라 한양도성을 돌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세밀한 그림과 함께 각 장소에 담긴 이야기도 담았다. 〈그림북·1만4000원〉  
▲방학 탐구생활=초등학교 마지막 여름방학을 앞두고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제대로 보내기 위해 스스로 방학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아이들의 생활동화이자 현실 밀착형 모험동화. 광주 출신 저자 김선정은 이 작품으로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대상을 받았다. 〈문학동네·1만1000원〉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국내 최초로 동물원에서 바다로 돌아간 돌고래 제돌이의 감동적인 이야기. 제돌이의 탄생부터 바다에서 평화롭게 살다가 어느날 갑자기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잡힌 뒤 동물원에서 쇼를 하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바다로 돌아가기까지의 이야기를 제돌이가 직접 들려주는 형식으로 썼다. 〈드래이틀·1만2000원〉  
▲잠 귀신=지금까지 없었던 개운하고 통쾌한 베드타임 스토리. 아이의 불안을 해소하고 마음을 다독이는 힐링 그림책이다. 책 속에 등장하는 잠귀신은 아이들의 못된 소원을 먹고 방귀를 뽀뽀하며 애매한 개성 있으면서도 귀여운 캐릭터다. 아이의 못된 소원을 먹으면서 아이의 욕구를 풀어준다. 〈정글짐북스·1만2000원〉  
▲역사 숲 체험 학습=역사와 자연을 함께 배우는 체험 학습 안내서. 우리 역사가 살아 숨쉬는 박물관, 궁궐, 성곽, 왕릉 등에서 12개의 체험 학습 장소를 선정하고 그곳에 얽힌 역사와 자연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 역사 체험 학습이 곧 생태 교육으로 연결되는 융합형 체험 학습 길잡이다. 역사 숲 체험학습 활동지가 별도로 포함돼 있다. 〈시공주니어·1만7000원〉

## 어린이 책꽂이